

한국 제조업 서비스화 낮아... 5개 제조강국 중 '꼴찌'

서비스 생산유발효과도 뒤쳐져 무협 "대-중소 기술 매칭 촉진 등 제조서비스화 적극적으로 나서야"

제조강국 5개 나라 중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기획-생산-유통-판매-유지보수 등 제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부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과생시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21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사례와 우리 기업의 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제조강국의 국가별 제조-서비스 기업의 비중은 독일(48.0%), 미국(22.6%), 일본(17.6%)이 한국(15.6%)보다 높다. 중국의 경우 데이터 수집 한계로 계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투입된

〈주요 제조 5개국 제조업의 서비스화 현황 비교(2021)〉

지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제조업 수출에 내재된 서비스 비중(%)	28.2	36.5	30.4	29.7	27.9
제조업 수출의 자국 서비스 생산유발액(백만\$)	485,111	523,936	269,257	1,342,421	189,551
생산유발효과	0.38	0.36	0.37	0.44	0.30
제조업 수출로 유발된 자국 서비스 부가가치창출액(백만\$)	295,471	279,687	161,141	703,441	97,901
부가가치유발효과	0.23	0.19	0.22	0.23	0.15
서비스 생산 제조기업의 국가별 비중(%)	22.6	48.0	17.6	-	15.6

등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 양적 보급 중심, 개별 기업 대상의 직접지원 중심이라는 점에서 해외 제조강국과 지원 패러다임의 차이가 있다"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때 수출 효과도 증대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제조 서비스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한국의 제조기업 가운데 서비스화가 진행된 기업은 비서비스화 기업 대비 이윤율이 약 4~5%포인트 높고, 1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약 1.3% 높다.

보고서는 우리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 매칭 촉진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원천기술·솔루션 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국제표준화 참여 ▲제조 서비스화 관련 통계 인프라 정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비스의 비중도 한국은 27.9%로 독일(36.5%), 일본(30.4%), 중국(29.7%), 미국(28.2%) 등 주요 5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수출로 인한 서비스 생산유발효과 역시 한국(0.30)은 중국(0.44), 미국(0.38), 일본(0.37), 독일(0.36)보다 뒤쳐졌고, 제조업 수출의 서비스 부가가치유발효과도 한국(0.15)은 미국(0.23), 중국(0.23), 일본(0.22), 독일

(0.19)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소비자의 성향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상품,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시대를 열고 있다. 연구개발(R&D) 및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화를 통해 고객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제품을 기획한다.

맥킨지(McKinsey)에 따르면, 개인

화는 소비자 친밀감을 높여 기업 매출액을 10~15% 가량 상승시키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또 제품에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최종재의 서비스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컨설팅과 솔루션 사업 등 서비스를 제품에 부가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공유·구독경제

장원교육, 가맹희망자에 예상매출 '뺨뼉기'

7년간 예상매출액 범위 부풀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문학습지 사업자인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뺨뼉기해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장원교육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장원교육은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 8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2014년 6월 ~ 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했다.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방식은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 부터 1년간 평균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한 최저액을 그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점포예정지 광역자치단체 내 인접한 가맹점의 매출한 산액 최저·최고액을 예상매출액 범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같을 수 있다.

장원교육은 그러나 회원구좌수에 월회비 12개월분을 곱해 산출한 추정 매출액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저액으로, 최저액에 1.7을 곱한 금액을 최고액으로 산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장원교육의 산정 방식은 추정매출액에 최대 25.9%를 가감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 방식과 비교했을 때 최대 약 35% 부풀린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장원교육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자의적으로 타 광역자치체에 소재하거나 점포 예정지에서 비교적 더 멀리 있는 가맹점을 인접 가맹점에 포함하기도 했고, 실제 매출액 대신 미래 발생 예측치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산정했을 경우와 비교해 3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최소 약 200만원에서 최대 6억8200만원까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원교육은 아울러 76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 무에 관한 사항을 누락했고, 96명의 사업자와 계약 체결시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비밀 유출 등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1000대 기업 R&D 투자, 전년비 12.9% ↑

(상반기)

산업부·KIAT '기업 R&D 스코어보드'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국내 1000대 기업의 투자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22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긍정 신호로 풀이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액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5조원(8.9%) 증가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R&D 투자액 증가율도 2020년 3.4%에서 2021년 8.9%로 증가해 지난 2013년 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1000대 기업의 R&D 투

자는 2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조원 증가했다.

또 지난 3년간 1000대 기업의 상반기 R&D 투자비중(35% 내외)을 고려해 산출한 2022년 R&D 투자액의 경우 전년 대비 9.4% 증가한 66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증가추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2021년 상위 1000대 기업 R&D 투자액 5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3.5조원),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조원) 순으로 R&D 투자가 많았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R&D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목표중심·도전적 R&D 확대, 사업화 촉진, 규제 개선 등 민간과 성과 중심의 산업 기술 R&D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인천공항, 내년 운항 횟수 최대실적 넘는다

슬롯 조정회의서 운항 스케줄 협의

인천국제공항의 내년 하계(3~10월) 항공기 운항 횟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주관 슬롯 조정회의에서 내년 하계시즌(3월 말~10월 말) 항공기 운항 스케줄에 대해 협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IATA 회원 및 비회원 항공사, 60여개 공항 관계자 등 1000여명이 1년에 두 차례 모여

차기 시즌의 항공기 취항을 위한 슬롯 가용 여부를 협의하는 항공업계의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공사는 이번 회의 결과 인천공항의 내년 하계 예상 슬롯 배정 횟수는 26만 3004회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하계 실적 9만9077회와 비교해 265% 상승한 수치이며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9년 하계기간 23만3650회에 비해서도 12.5%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내년 하계기간에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종전 최대 운항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롯'은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사



16일 오후 호주 멜버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51차 IATA 슬롯조정회의' 인천공항 회의실에서 장준 슬롯운영팀 사원(왼쪽 첫번째), 김형신 허브화전략처장(왼쪽 두 번째)이 인천공항 여객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를 말한다. 특히 항공사가 특정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출발지 공항과 도착지 공항의 슬롯 확보가 필수적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부발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한국문화정보원장상 수상

서부발전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2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및 우수담당자 선정'에서 우수기관 부문 장려상인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문체부가 공공기관의 저작물 개방과 이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과 담당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서부발전은 2021년부터 회사가 생산한 저작물을 국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

을 체결해 저작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했다. 먼저 공공누리점검단과 공공누리 모니터단을 운영해 국민의 수요를 파악해 저작물을 개방했다. 또 동영상 관리시스템 내 공공누리유형 부착을 의무화했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그결과 공공저작물의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530건에 불과한 공개저작물이 올해 564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우수저작물로는 ▲안전제조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부인의 필수안전수칙 등 안전문화영상이 있다. /원관희 기자 wkh@